



3면

송영길 구속... 민주, 수사 과정 예의주시

# 전주매일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음 11월 8일) 제340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주 대통령 법 공포 예정  
김 지사 "부여받은 권한  
실행 위해 착실히 준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는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의 권한이 담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법 공포 단계만을 남겨놓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특별법 전부개정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이에 따라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면서 명실상부한 전북자치도로 거듭나게 될 예정이다.

131개 조문을 담고 있는 이번 특별법은 국가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전북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전북자치도의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부개정을 통해 규정되고 위임받은 특례에 대한 시행령 개정,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각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가 속도감이 있게 진행되어, 얼마나 내실 있게 법령이 갖춰지고, 계획이 수립되느냐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향방이 달려있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고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며, "특별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법 조문 하나 하나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14개 시군과 함께 의미를 공유하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념통장 출시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념 이벤트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1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함께 그리는 새만금'을 주제로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 정운천 국회의원, 박영기 새만금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새만금 희망그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함께 그리는 새만금, 미래 성장동력으로' | 제2회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

각계 전문가 참여... 새만금 교통 SOC·이차전지 등 열띤 토론회  
도·새만금청·도의회·신지식장학회·JB미래포럼 공동 주최

전북도가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발전 전략 구상을 위해 각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포지엄을 열어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아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1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라북도도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의회, 신지식장학회, JB미래포럼 등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함께 그리는 새만금'을 주제로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개회식, 기조연설, 세레머니, 발제·토론 등으로 구성하고, 각계 각층의 인사와 전문가들이 새만금 개발 활성화와 이차전지 육성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정운천 국회의원과 박영기 새만금 민간위원장, 새만금개발청,

JB미래포럼, 신지식장학회, 군산·김제·부안 등 시군 부단체장 및 의회 의장, 이차전지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전북은 특별한 미래를 향한 새만금에서 기회와 가능성을 얻을 것"이라며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이끌어야 하고,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새만금을 위한 정책을 함께 그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환영사를, 정운천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고, 이어서 '새만금의 희망'을 담은 샌드 애니메이션과 새만금 희망 그림 퍼포먼스, 심포지엄 참가자 전원이 새만금 비전을 들어 '새로운 전북, 특별한 미래' 향해 나아가는 새만금을 염원하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영기 새만금 민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희망, 함께 그리는 새만금'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통해 장기화된 새만금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해외 첨단산업 클러스터 성공사례 벤치마킹 및 지역혁신역량 결집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포지엄은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교통 SOC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상훈 연세대 교수가 좌장으로 남궁 문 원광대 교수가 '새만금 광역 교통인프라 적시공급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남궁 문 교수는 민간투자 본격화, 기업유치 조건, 새만금 거주민 생활여건 조성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 고현정 군산대 에너지메이커와 새만금 희망 그림 퍼포먼스, 심포지엄 참가자 전원이 새만금 비전을 들어 '새로운 전북, 특별한 미래' 향해 나아가는 새만금을 염원하는

성 강화 국제 물류 운송 체계 마련, 입주인 생활교통체계 마련 등 새만금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을 토론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션 2는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산업 육성방안'으로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좌장을, 선양국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선양국 교수는 우선 중점 추진 과제로 중앙의 연구개발(R&D)과 연계한 초격차 기술 개발,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리사이클링 및 광물 가공 분야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오택립 전북도 미래산업국장, 강석기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PD, 김형덕 (주)성일하이텍 이사 등이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참여 속에 이뤄졌으며 폐수처리장 신설·확대 등에 관한 사항들이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훈 기자

전북생생장터-마켓경기

농특산물 상생  
협력 프로모션  
일주일간 진행

전북 토마토·파프리카  
경기 계란·건강식품 등  
우수상품 20% 할인 판매

이번 기획전 시작으로  
전북·경기 협력 확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의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라 농특산물 상생 협력 프로모션을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전북생생장터와 마켓경기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생생장터와 마켓경기는 우수상품 트레이드 기획관을 개설해 전북도 우수상품인 토마토, 고구마, 파프리카 등은 마켓경기에서, 경기도 우수상품인 계란, 민두, 잣, 건강식품 등은 전북생생장터에서 각각 2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전북도는 전북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마켓경기(경기도)와 첫 번째로 지자체 협업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 성과에 따라 상품군을 다양화해 추가 프로모션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경기도와의 협업 기획전을 첫 시작으로 다른 타 시도 지자체물과도 협업을 추진해 전북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제10회 무주 반딧불배 스키&스노보드 대회 성공 개최 기원



무주군의회의 또 다른 이름

# 희망의회의!

새로운 변화, 함께 하는 의정  
내일을 준비하는 무주군의회의

무주군의회의 MUJU-GUN COUNCIL